

모세는 어떻게 피폐한 광야를 이겨 냈는가?

성경말씀: 출3:1-12

코로나 19 사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 육아, 예배 등 모든 분야가 피폐한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암 등 큰 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체들, 실직, 구직 지난 주 신8:2-3, 우리를 낮추신다. 뽕뽕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함을 보여 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주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40년 동안 함께 광야를 떠돌아다녔다. 동일한 광야를, 만일 모세가 중간에서 쓰러졌으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모세는 어떻게 피폐한 광야를 이겨 냈는가?>

모세가 당한 어려움

민수기는 백성이 불순종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 것을 보여 주는 책, 40년간 매일 장송곡이 울리는 것을 보여 주는 책, 이 안에는 모세의 각종 어려움이 나열되어 있다.

1. 백성의 불평(11)

(1) 디베랴(1-2)

(2) 이집트 음식이 생각난다(5-6). 백성이 옹(10), 모세의 항변(11-12), '나를 죽여 주십시오'(15) 메추라기(31-34), 기브룻하다와

2. 형과 누나의 불평(12)

(1)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셨다(2). 하나님의 변호(7)

3. 가나안 땅 정탐(13-14)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 가나안 정탐(2), 각 지파의 대표 이들의 보고(32-33), 결국 40년 방황함(14:32-34)

4. 레위 지파 사람들의 반역(16)

왜 너희만 잘난 척 하려고 하느냐(1-3)? 고라의 무리 250명 결국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죽임(31-33)

백성이 고라의 무리를 옹호하다가 14,700명이 죽음(49)

5. 모압 왕 발락이 거짓 대언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22-24), 실패

그러나 결국 모압의 딸들과 이스라엘이 행음을 하여 24,000명이 죽음(25)

6. 이 외에도 아말렉과의 전쟁,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 등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부 외부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데려다주고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죽음

다시 말한다: 모세도 그들과 동일하게 동일한 광야를 지났다.

시대 반도의 광야: 물이 없는 곳,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신8:15)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40년 동안 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사명을 받기 전에 이미 40년 광야의 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모세의 광야 체험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가나안을 주는 것

민족이 형성되어야 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족 70여 명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감 처음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등장(1:8)

이스라엘이 늘어나자 이집트 사람들의 시기 질투, 공포(10)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22), 메시아 씨를 말리려는 마귀의 계략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된다.

이집트의 학문, 문화, 지식, 싸움에 정통한 사람이 된다(행7:22). 능력 있는 사람이 됨 한편 그는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려는 귀한 마음의 소유자

드디어 그가 40세 되던 해에 일이 벌어짐(11-15).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함(15)
모세의 의도는 좋았다. 자기를 그들을 구출할 자로 여기고 일을 수행함, 용기, 의리 있는 사람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자기 뜻대로 방법대로 자기의 시간에 수행하려고 함
바로 이때에 주님의 섭리,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 산 교육을 받음(히12:5-6)
40년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이집트의 왕자가 양과 염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함

그의 맏아들 게르솜(2:22)

드디어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다(3:1-5). 불타는 떨기나무(Burning bush)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5).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 대하듯 하면 안 된다.
순서대로 하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흙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라는 말이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후6:16-7:1).

하나님의 사명 부여(출3:10-11)

모세의 대답: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40년 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이집트의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호렙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체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2.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3.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사라짐
4. 이집트의 왕자 권위 의식이 사라짐
5.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사라짐
6.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그는 자기의 야망, 소원, 꿈, 계획, 이기심, 뜻에 대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비웠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간 광야를 통과하며 믿음을 보여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히11:24-29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광야를 지났다(27).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대가나 권력을 바라지 않았다(26).

이집트의 모든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는 사망의 땅, 절망의 땅, 전갈이 나오는 무서운 땅을 지났다.

광야의 교훈: 빈 그릇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을 아는 것

모두 이집트에서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광야로 들어갔는데 모세와 그를 따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다수는 항상 불평불만, 동일한 광야의 삶,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광야를 이긴다.

광야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지나가는 일이 있어야 또 다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이집트로 가라고 했을 때 갈 수 있었고 40년 간 광야를 지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11:29).

통계 면에서 볼 때 모세의 사역은 어느 면에서 실패이다.

1.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 사실이다.
2. 그러나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이다.
3. 광야에서 무려 120만 명이 죽어나갔다. 1년에 3만 명씩, 하루에 100명씩
4. 모세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
5.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올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함께하신다(마17:3).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다.
6.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그분과 이야기하였다(신34:10-12). 즉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다르다.

광야의 체험 결론

1.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2. 주님만 의지합니다.
3. 광야의 체험이 끝나면 드디어 우리는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4. 그러면 인생의 어떤 광야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
5.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코로나 19로 절망하는 분들

암 등으로 투병하는 분들

나라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자. 나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한다.

북한 땅이 자유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